

〈지난주 말씀&서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지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를 풀어서 있는 것 같지만 살리도록 파송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불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을 가진 자에게, 갈보리사의 언약으로 답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봄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봄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야? 오직 그리스도로 답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불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느냐. 미래적인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미래를 오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곱 나팔이 불고 나서 완성되는 그 날에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주 불잡아야 할 언약은 내가 오늘 세상 나라 속에 있다면 복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임을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왕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 우리의 주인, 그 분이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다, 이 말은 영세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지금도 계셨다, 이 말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 심판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분이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분이 왕입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고 염려할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옛적에도 계셨다는 것은 영세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그 분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될 분입니다.

▶서론에서 답을 다 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완전성,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가 맹세하고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답났다는 것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팝박이 다 가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이 선포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이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반드시 오늘 내가 붙잡은 비밀로부터 나오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양되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표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도, 시대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난 자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답난 자들입니다. 답난 자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로 여러분은 지유를 하려고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입니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은 일주일간 강단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만 사는데 그 먹을 때 내 입에 물같이 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달지 않다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입에 문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은혜가 안돼요,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못받고 있는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론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절대망대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느라 자리에 있는 나는 맞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전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 남겨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재생사이 일어나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성복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직장에 나를 파송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를 돋고 동역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역을 살리는 정탐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기발을 드는 사령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중 한 가지에 답을 냈다면 그 사람이 절대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으로, 성복자로, 순례자로, 남은 자로, 파송된 자로, 기를 든 자로 살겠습니다. 그걸 찾으 사람을 보고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망대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기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나, 이게 바로 절대망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준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명 한명이 여러분 현장에 절대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열구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이 한 지역에 한 맹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론 세 번째로, 답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답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미션, 하나님 나라에 답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오직 증인으로 답이 나서야 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과거, 오늘, 미래가 틀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미래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과거는 망하는 미래였지만 내가 오늘 내가 누구인지 찾고 오직으로 널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되는 미래,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미래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서 봉대를 감고 돌무덤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꽁꽁 묶여 죄는 절대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이걸 지극정성으로 스스로 살 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난리를 쳐도 절대불가능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절대불가능한, 망하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죽어 썩어 냄새나는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뭉인 데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우리는 뭉인 데서 풀려나와서 참 자유를 가지고 가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본론〉

1. 측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계 11:1)

측량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측량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유하고 소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라는 의미는 구별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측량하는구나, 측량 속에 들어있는 나구나, 이 말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보호구역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보호 대상자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측량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을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계11:2)

참 놀라운 일입니다. 측량한 하나님의 백성 외에 밖에 둔 이 밤인들을 통해 측량받은 자들이 고난받드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 마흔두 달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허락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굽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계11:3)

마흔 두달이 천이백육십일입니다. 장장 3년 반입니다. 7년의 회한 때 3년 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다가올 일을 생각한다면 오늘 나는 누구인지 빨리 찾아야 합니다.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선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계11:4)

여기 두 증인을 스가랴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말씀

의 비밀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스가랴 4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두 사람을 말하고 있고, 이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두 증인이 그 어려운 마흔 두 달 가운데도 일어나서 증거하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 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계11:5-6)